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ia.com



구성원은 불신임, 총장은 자신감?

남북관계가 심상찮다. 달까지 바뀌어 6월이 되니 한국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전쟁 발발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수하에서 “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서 먹겠다”는 장담이 있었다. 전쟁이 발발해서 열세에 몰리며 대구까지 물러났다 대전으로 잠시 올라왔던 정부였지만 큰소리는 여전했다.

“저는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관공서의 국가문서는 물론 한국은행 지하의 은행권까지도 방치한 채 퇴각했던 정부의 변이 있었다.

5월 25일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의 이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처리된 11개 안건 중에는 2008회계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학진흥기금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일산불교병원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다.

동국대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108프로젝트와 시설투자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및 보완할 것과 의료원 수입 정제 및 감소와 일산병원 차입금 상환 등을 지적했다.

내부 감사도 “구조조정 및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8프로젝트는 오영교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펼쳐 온 야심찬 계획이다. 그가 펼쳐온 시설 투자사업 역시 일류대학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일환이었다. 무엇보다 수백억 부채를 안고 있는 의료원은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의료원 손실은 자금 유출이 없어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가이사 “중대대가 400억 부채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다”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자 오 총장이 반발했다.

오영교 총장은 “경주병원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등 이 추세라면 의료원은 안정된다”고 자신했다. 이어 오 총장은 “동국대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일류대로 갈 수 있다. 이사장한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국대 교수회는 오영교 총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총학생회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신임 받지 못한 리더의 자신감.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출재가 인적자원 취약 ‘위기’

조계종 총무원 ‘불기2552년도 종단 통계자료집’ 발간

2008년 12월 31일 현재 조계종 전체 사찰은 2501곳, 승려수는 1만 3860명이다. 사찰수는 전년대비 57곳(2.3%) 증가, 최근 5년간 203곳(8.8%)이 증가했다. 승려수는 전년대비 284명(2.1%) 증가, 최근 5년간 1186명(9.3%) 증가했다.

이같은 통계는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5월 27일 발간한 <불기 2552(2008)년도 종단 통계자료집>이하 통계자료집에서 발표된 것.

종단 주요현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집에는 사찰, 승려, 승려교육, 신도교육 등 9개 부문별 통계가 수록됐다.

통계자료집에 수록된 과거 대비 사찰과 승려수의 소폭 증가 이면에는 매년 되풀이 되는 조계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특히 통계자료집은 개신교나 가톨릭 통계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열세를 넘어 조계종 인프라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당장 승려수 증가와는 별도로 기

초교육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것은 위기다. 남행자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 폭은 두자리수(-26.9%)로 승가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반증한다.

재가자로 구성된 포교사도 문제다. 포교사는 전년대비 8.2% 증가했고, 팀별 활동도 15.7% 늘어났다.

포교사의 연령별 구성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체 포교사의 반수 이상이 50대 포교사로 40-60대에 걸쳐 분포해 젊은 인력의 공급이 시급해 보인다. 포교 활동분야도 편중됐다. 포교분야별 활동 포교사 수는 군부대, 사찰문화, 지역봉사, 열불봉사 순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 포교를 비롯해 교육포교 활동자가 취약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종단 인프라의 취약함은 청소년 불자단체인 파라미타 증감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파라미타 전체 회원 수는 1만 7535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쳐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재가신도도 위기는 마찬가지. 전문교육기관이 전년 대비 5.6%로 소폭 증가한데 비해 수료자는 -8.1% 감소했다.

반면에 사찰사원이 줄고(-4.4%) 공찰이 늘어난(13.6%) 것은 5월 1일 입법예고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제정안)과 발맞춰 종단적 분위기가 ‘무소유’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교 관련 문화재가 2007년 1951건에서 2192건으로 늘어난 것은 문화재와 관련한 종단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계종 사회복지 시설이 전년대비 9.5% 늘고 종사자수가 25.4% 늘어난 것도 조계종의 사회참여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된다.

조계종은 불교계 대표 종단의 하나다. 때문에 통계자료집이 보여준 출재가를 막론한 인적자원의 취약점은 불교계의 어두운 미래를 의심케 한다. 통계자료집 발간 때마다 드러난 조계종의 해묵은 과제가 풀리길 기대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진대회 열려

조계종 포교원 7월 11일 개최 예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은 어린이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2007년 시작된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만큼 이번 전진대회는 포교원이 그동안 야심차게 진행해온 사업 결과물과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진대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2000여 어린이와 지도자가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연꽃문화재단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축제 한마당, 문화공연, 전진대회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참가

한 어린이들에게는 수계·신도증을 발급한다. 종단에서 처음 발급하는 어린이청소년 신도증은 재적 사찰이 있는 어린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지난 4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성인용 새 신도증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진대회 분행사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총괄 분정 △포교 우수 사찰 및 지도자 표창 △수계의식 △포교 중심도량 시행 사항 선포 △중심도량 현판 전달식 등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에 앞서 축제 한마당에서는 불교체험마당, 전래놀이, 교구교재 전시 및 주요사업소개, 불교중앙박물관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02)2011-1892 이상연 기자

다문화 가정지원 전문 봉사자 양성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부와 함께 11일부터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지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양성교육은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교사, 간호사, 보육교사, 상담사, 미술치료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다문화가정지원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여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강좌는 △조희금 교수(대구가정복지학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나라별 문화 특성 이해’ △김현덕

사무팀장(마하 이주단지원단체협의회)의 ‘다문화가정지원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할 법률과 지원 서비스’ △이정호 대표(시아동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의 ‘표현예술심리치료기법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의 실제’ 등을 진행한다.

불교여성개발원 관계자는 “다문화 화가족이 정서적 지원과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한국사회의 일부인 만큼 한국사회의 조화와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02)722-2101 이상연 기자

동국대 새 이사장 선출 ‘무산’

영남 스님 “6월 선출하도록 하겠다”

동국대 새 이사장 선출이 무산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5월 25일 제244회 이사회를 열고 후임 이사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선출하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3인 중 정년·혜립 스님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결산 승인, 기채 승인, 교원 인사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다른 안건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으나 이사장 선출 건만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두시간 여 동안 신규 교원 임용 등 8개 안건을 처리한 이사회는 이사장 선출 안건 상정에 앞서 스님이사들 간에 협의가 있었으나 차기 이월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영남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누구라도 이사장에

선출되면 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이런)은 꼭 이사장을 선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사장 선출이 미뤄지자 등문화장인 전순표 이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또 연기되면 동문들이 어찌 볼지 참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규철 이사도 “이사장을 스님이사들이 합의 후 추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스님이사들이 하나 돼서 동국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영남 스님은 “종단 상황과 맞물려서 안 되고 있지만 곧 될 것”이라며 “6월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가 상정·처리한 안건은 △교원 인사에 관한 건 △2008회계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을 통해 “그동안 누구라도 이사장에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일산불교병원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교육용기본재산 매입 승인에 관한 사항 △경주병원 고가장비 시설대여(리스) 승인에 관한 사항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관련 산학협력관 및 한의학과 신축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다.

오영교 동대 총장 퇴진운동

동국대 교수회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동국대 교수회의 총장 불신 퇴진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5월 2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009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수들은 결의문에서 학교측에

△학제개편과 입학정원관리시스템 백지화 △연구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 △인사평가시스템 철회 △교수특별채용기준(안) 철회 등을 촉구하는 한편, 오영교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유덕기 회장은 “결의안이 관철

될 때까지 총장 퇴진운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6일 동국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신동욱)도 오영교 총장 등 학교당국을 성토하는 행동에 나섰다.

신동욱 총학생회장과 이은지 부총학생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비롯해 교내 곳곳에는 학교 측의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성토하는 대자보가 줄고 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도의 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은 5월 25일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는 1부 상단불공과 2부 법회순으로 봉행됐다. 조동섭 기자

저자거리 열린선원 개원 4주년 기념특별법회

(다음카페 열린선원, www.opentemple.or.kr)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도량 열린선원은 저자거리 재래시장인 역촌중앙시장에 2005년 6월 5일 개원법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린불교아카데미,재래시장활성화 기원법회,명절차례시연법회,이웃종교 이해를 위한 시간,거리포교,템플스테이,가족법회,중앙대불교학생 동문가족법회 등 활동을 하며 3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개원 4주년을 맞이하여 조출한 기념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행 사 명 : 저자거리 열린선원 개원4주년 기념특별법회

1날 짜 : 2009년 6월 6일(토) 오후 3시 ~ 오후 6시(저녁 소찬공양)

1행사내용

제 1부 특별강연(오후 3시 ~ 4시 30분)

· 마성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존재의 세 가지 성질=3법인)

제 2부 기념법회(오후 4시 30분 ~ 6시)

· 격려법어 - 월운큰스님(태고종 사정원장)

· 축하공연 - 엘리스블루 강 해운

※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특별 선물(전통 된장,고추장)을 드립니다.

※ 열린선원의 윤달불사는 서울대 정문 안에 있는 600년 전 무학대사 창건사찰인 전통사찰인 관악산 자운암과 연대하여 대승보살계 수계법회(6월 28일 일요일 오전10시 30분:자운암 금강계단)로 봉행할 예정입니다.

1문 의 : 종무소 (02-386-4755, 4720)



한국불교태고종열린선원장 법현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기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기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